

무주 안성낙화놀이 관련 전문가 간담회 토론문

정형호(무형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이번 간담회는 무주안성낙화놀이의 국가무형문화재 전환을 위한 전문가의 간담회 자리이다. 명색이 간담회지만 학술세미나의 형식을 지니고 있어, 3인의 학자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는 현존하는 한국의 낙화놀이 중에 하회선유줄불놀이를 여러 차례 보았으며, 함안낙화놀이는 4년 전에 현장 조사 및 보고서 작성에 직접 참여했다. 그리고 올해 정월 대보름에는 여주 본두리 낙화놀이를 직접 현장 답사했다.

지정 상황을 보면, 함안낙화놀이는 경남도지정, 무주낙화놀이는 전북도지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하회 선유줄불놀이, 세종 등곡리낙화놀이, 마산 진동낙화놀이, 여주 본두리낙화놀이는 미지정 상태에 있다. 그리고 함안, 하회는 전승지역에서 축제화하고 있으며, 무주, 마산, 여주는 전승지역의 행사와 장소를 옮겨 대규모 축제로 행해지고 있다.

본인은 중앙대에서 오래 강의했고, 평생 민속학자로 살아왔으며, 실제로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8년, 문화재위원 4년을 역임해서 지정 과정을 잘 알고 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다.

첫째, 이영배 선생이 무주 남대천에서 1871년 9월 15일에 이루어진 ‘포쇄일기’의 낙화놀이를 발굴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본다. 발표에서는 160여년 전의 이 기록과 무주군 안성면 두문리의 낙화놀이와 직접적인 상호 관련성이 없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무주읍과 안성 두문리는 적성산을 사이에 두고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다.

성격을 보면, 무주 남대천 기록은 관에서 손님 접대용으로 부정기적인 놀이가 이루어졌으며, 안성 두문리의 낙화놀이는 두문서당 중심의 책걸이 형태로 놀이가 행해졌다. 따라서 전승 집단이 19세기 기록은 관주도의 접대용 놀이이고, 두문리는 마을 단위 민주도의 놀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두문리의 역사성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일부 주민의 구술내용을 바탕으로 일제 강점기 이상으로 올라가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지정을 신청할 경우에 역사성 항목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포쇄일기와 관련을 짓지 않으면 역사성 분야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포쇄일기’의 기록과 안성 두문리의 낙화놀이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지 못하더라도 간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하다.

둘째, 이번 간담회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문화재청의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사업을 통해 앞으로 여러 방향성에 대해 전략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무주군에서 가장 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역사성, 대표성, 학술성, 예술 및 기능성 등이 두루 고려된다. 특히 무주낙화놀이의 역사성과 대표성은 비중도 크고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이런 점에서 안성두문낙화놀이가 최소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표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낙화놀이와 어떤 변별성과 특이성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부각시켜야 한다. 전승방식, 공동체, 재질과 첨가물, 놀이방식 등에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요소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 낙화놀이와 면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2019년에 함안낙화놀이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신청해서 지방무형문화재로 유지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와 함안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하회의 선유줄볼 놀이는 지금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을 먼저 시행 중에 있다. 따라서 현재 전승되는 6곳의 낙화놀이가 모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각자도생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6곳이 연합해서 같이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6곳이 각자 국가지정을 시도하면 오히려 상호 견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6곳이 연합해서 종목지정으로만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현재 도지정인 무주낙화놀이의 경우에 어떤 선택이 유리한 지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낙화놀이는 전래가 없는 귀중한 전통적 무형유산이다. 숯가루를 이용해 일자형 또는 파배기 형태로 짜서 만든 다수의 낙화봉을 줄에 매달아 불을 붙여 흠뻑리게 하는 이런 형태의 불꽃놀이는 한국 이외에는 현재 전하는 곳이 없다. 매우 미학적인 아름다움이 있으며, 이에는 불교적인 초파일 문화, 유교적인 양반의 풍류문화, 민간의 세시풍속으로서 정월대보름의 축귀(逐鬼)문화가 두루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현존 6곳의 전승단체가 힘을 합쳐 유네스코 지정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앞으로 관련 연구를 통해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오늘 발표하신 한양명 선생이나 김형근 선생께서 이런 방향성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고견을 듣고 싶다.